

장성 상수도 보급률 2015년까지 85%로

현재 54%... 올 64억 투입 동화·황룡 등 배수관로 매설

장성군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을 대폭 향상하기로 했다.

군은 13일 “현재 54%에 그치고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오는 2015년까지

85%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장성군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배수관로 등 시설확충 사업비 497억원을 투입해 북일·북이·북하천 등 북부권 지역을 시작으로

로 진원·남면 등 동부권 전역에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59억의 예산을 들여 동화·황룡·서삼면 등 중부권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군비 5억원을 추가 투입해 삼계면 수곡리 일원에 가정 급수관로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장성을 시가지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추진 중이다.

군은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년 후면 주민의 85%가 양질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야구장 없는 야구대회 열리나

나주시, KBO총재·스포츠토포배 유체의회간 마찰 구장 확보 못해 전전공공

지난 2011년 나주시가 유치한 전국 규모 야구대회 개막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작 대회에 필요한 야구장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다.

무리한 유치와 유치 후 어설피 야구장 조성과정, 집행부와 의회 간 마찰 등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2013년 KBO총재 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가 오는 7월20일~28일까지, ‘2013년 스포츠토포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7월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산강 둔지 일원 9개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초등부100팀, 리틀 부 152팀, 여자부35팀, 학부모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현재까지 4개 구장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해 9개 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와의 마찰 속에 예산 지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조성 예정인 5개 구장 가운데 1곳을 제외한 4곳 가

운데 2곳은 인근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2곳은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대교 밑 둔지에 임시로 설치, 대회가 끝나면 철수하기로 했다. 시는 구장 설치 비용을 제외한 대회운영에만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대회 준비 미흡으로 인해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시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숙박 시설이용을 위해 시내숙박업소를 비롯한 농촌체험마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관내숙박업소와 음식점업주들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담양 죽녹원 '우후죽순' 12일 하늘을 향해 쪽쪽 뿜어 올라고 있는 담양 죽녹원의 죽순들. 지난 9일과 10일 비가 내린 뒤 곳곳에서 곳곳이 올라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장흥농공단지 분양 합니다

장흥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공동개발한 장흥군 부산면 소재 농공단지 대해 음·식품 사업 희망자에게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했다.

장흥농공단지는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흥의 풍부한 농축수산물을 현지에서 신선하게 가공

해 판로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착공했다.

분양가격은 3.3㎡당 27만원으로 12블럭의 공장용지를 4400㎡부터 1만 2500㎡까지 크기가 다르게 조성해 사업규모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장흥농공단지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장흥IC에서 5km에 지점에 위치해 광주, 목포, 순천을 1시간에 연결하는 접근성과 장흥의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진흥원, 버섯연구소와 연계한 연구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은 분양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인지도조급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5·18 33주년 기념 '강진청자 판매전'

14~19일까지 광주 아트갤러리

강진군은 13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갤러리에서 ‘강진청자 전시·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 오후 3시에는 명품청자 출품경매 행사를 열기로 했다.

강진군은 이번 행사에서 강진관외의 국보 재현작품 5점과 그동안 국외전시와 대도시 판매전으로 다양한 디자인 감각을 접목

시켜 현대작품에 힘써온 개인요작가 5명의 작품 55점 등 모두 60점을 전시·판매한다. 명품청자 출품경매는 강진관외 작품 5점, 개인요 작품 15점 등 총 20점을 엄선해 정상 판매가의 50% 할인가로 시작해 호가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출품가격은 최소 5000원 단위로 올리고 경쟁자 없이 1명이 응찰할 때도 유효하며 유찰된 작품은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나라사랑 사랑의 집짓기 준공

강진군은 13일 “지난 9일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에서 31사단 주관으로 열린 나라사랑 보급자리사업 사랑의 집짓기사업 준공식에 강진원 강진군수, 박병기 31사단장,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연득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런 나라사랑 보급자리 사업은 군 동면 풍동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인 윤유현(83)씨 부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접하고, 31사단과 연계해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집짓기는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 2개, 거실, 화장실 등을 갖춘 경량철골조로 설립됐다. 윤씨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집이라 비가 새 늘 방안에 곰팡이가 가득했는데 이렇게 좋은 주택을 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북

'위도' 관광객에 교통편의 제공

부안, 관광순환도로 정비

포과 난만이 있는 아름다운 섬, 환상의 섬 '위도'의 관광순환도로가 정비된다.

부안군은 13일 “연장 23.8km에 달하는 위도면 지방도 703호선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도의 지방도 703호선은 지난 1998년 이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파손상태가 심하고 특히 도로 포장에 노후화돼 도로 이용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위도면 진리 파장급항~대리 소리마을까지 총연장 6km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총 1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위도면 지방도 703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위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순창, 권역별 개발 소득창출·관광객 증대

농촌마을종합사업 평가 최우수군 선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결과 순창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결과 권역 체험객을 위한 향토 음식요리사 양성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와 체험, 축제를 추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관광객 증대 효과를 거뒀다.

또 5개권역이 연합해 농촌마을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워크숍 공동 개최와 공동브랜드 개발, 쇼핑물 구축으로 공동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5개 권역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농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회산산·강천산·서암·섬진강·방산 등 5개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243억원을 투자해 농촌마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까지 1차 서면평가와 2차 종합평가를 거쳐 S, A, B, C, D등급으로 나눠 실시했다.

순창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결과 권역 체험객을 위한 향토 음식요리사 양성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와 체험, 축제를 추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관광객 증대 효과를 거뒀다.

또 5개권역이 연합해 농촌마을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워크숍 공동 개최와 공동브랜드 개발, 쇼핑물 구축으로 공동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5개 권역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농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회산산·강천산·서암·섬진강·방산 등 5개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243억원을 투자해 농촌마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부안 21개 농특산물 '서울국제식품 대전' 참가

부안군은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컨텍스(KINTEX)홀에서 열리는 ‘2013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에 참가한다.

아시아지역 4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은 국

내·외 식품과 식품기기를 전시하는 행사로 국내 최대 규모다. 군은 올해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부안쌀 통합브랜드인 ‘천년의 솟씨’와 뽕 관련 제품, 젓갈, 죽염 등 21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시음·시식 등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순창, 주말 직거래 장터 운영 호평

순창군이 주말에 고추장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직거래 장터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연구회로 육성한 ‘순창다솜’ 농산물가공연구회원 40여명이 주축이 돼 순창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

다.

판매물품은 한과와 조청을 비롯해 생산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딸기잼, 복분자액상차 등의 가공식품과, 농가에서 재배해 손질까지 깨끗하게 한 호박고지, 무말랭이, 토란대 등 건조 나물류 등 30개 품목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멜론 주산지 된다

원예브랜드 사업 선정

3년간 95억원 투자

남원시는 올해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끝내 대한민국 최고 명품멜론 생산주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남원 멜론은 지난 2010년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 130농가에서 44ha를 재배해 연간 4300t을 생산, 71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성장동력 품목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가 공모사업인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FTA기금 국비 38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17억원 등 95억원으로 품목 조직화와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기공 등 종합처리 시설에 집중 투자했다.

이 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 BJ멜론, 남원시 멜론 연합작목반, 남원원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정육묘장(3459㎡)을 완공한 뒤 다음달 신제품 육성온실, 오는 8월 종합처리시설(4691㎡) 등의 완공이 예정돼 있다.

준공된 공정육묘장은 남원 전체 멜론 생산농가의 필요한 모종(연간 160만주)을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신제품 육성온실에서는 연 3기작 재배(작기별 6회전 수확체계) 시설을 갖춰 연중 생산이 가능해진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결연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어주기

남원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13일 춘향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결혼이민자 하트-맘(마음)으로 맺은 엄마 맺어주기’ 결연식에서 결연을 맺은 새내기 이주여성 20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남원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13일 춘향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결혼이민자 하트-맘(마음)으로 맺은 엄마 맺어주기’ 결연식에서 결연을 맺은 새내기 이주여성 20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농진청장, 고창 복분자시험장·정보리밭 방문

농촌진흥청 이상호 청장은 지난 10일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해 고창군 농업현장을 방문했다. 이 청장은 복분자시험장, 공음 정보리밭 등을 찾았으며 고창농촌지도자회 류제준 회장 등 농업인단체 대표 7명과 함께 한 단담회를

갖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방안, 귀농·귀촌 지원 등 당면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현장 농업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영희기자 cy0370@

생활개선정읍연합회, 요양원 봉사활동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회장 유연숙) 회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정읍시 태인면 노인요양시설 동심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회원들이 직접 채취한 쪽으로 빚은 절편과 음료, 다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생활개선회원들은 매년 직접 지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밀반찬과 쌀나누기, 목욕·미용봉사, 생필품 전달 등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오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